금주의 법구–〈대애도비구니경〉
술은 현명함을 몰아내고
성스러움을 깨뜨리며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5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6월 8일)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탁발 등 新콘텐츠 도입 범국민 모금캠페인 확대”

7년 맞은 행복바라미 현황과 과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첫 대국민 나눔 캠페인 ‘행복바라미’가 출범 7년을 맞았다. ‘행복바라미’가 범국민 캠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콘텐츠 개발과 불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캠페인 확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6월 30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19행복바라미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행복바라미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를 짚는 공청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불교 대표 나눔캠페인 자리매김

행복바라미는 2012년 말 이기흥 제25대 중앙신도회장이 취임과 함께 조계종 중앙신도회 25대 집행부에서 중점 사업으로 시작했다.

공청회 발표에 따르면 기독교계 모금 단체인 월드비전은 2320억 원, 굿네이버스는 2080억 원으로 두 단체에서만 4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모연됐다. 이에 비해 불교계는 아름다운동행 47억 원, JTS 4억 원, 지구촌공생회 25억 원 등 1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전국 사찰 순회 등을 통한 동참을 유도하며 성장했다. 이는 모금소의 증가를 보면 알 수 있다. 2013년 108개 모금소를 시작으로 2014년 114개소, 2015년 141개소, 2016년 167개소, 2017년 198개소, 2018년 207개소로 확장됐다. 모금액도 2013년 1억 1900여 만원에서 2014년 1억 1100여 만원, 2015년 1억 7100여 만원, 2016년 2억 700여만원, 2017년 2억 3000여만원, 2018년 2억 2100여 만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4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막한 이후 지역 중심으로 변환돼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18개 교구본사에서 행사가 열렸다. 주요 사찰 등 전국 500여 곳의 모금소가 개설돼 현재까지 총 1억 6000여 만원이 모였고 이는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도 모금액의 70%를 넘어서는 성과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총 2203명에 달하는 기초수급과 차상위, 저소득층 계층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진행해 불교 기부모금 활동의 가능성을 보였다.

‘전국 탁발’ ‘불자대회’ 등 콘텐츠 필요

행복바라미 캠페인이 범국민 자비나눔 캠페인으로 발전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시됐다.

행복바라미 원주지역문화제를 주도한 임현규 조계종 제4교구 신도회 총무부장은 “자비나눔과 함께 전통문화 계승발전이란 본 취지에 맞는 공연이 이어져야 한다. 어떤 지역문화제의 경우 벨리댄스 등이 공연되는데 전통공연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교전통과 거리모금을 접합한 탁발행사를 확대하자는 요청도 나왔다. 대전지역 탁발 행사를 진행해 온 박은주 조계종 제6교구 신도회 홍보부장은 “거리모금이 주요 목적이기에 모금소 설치와 함께 문화제 일환으로 탁발행사를 진행했다. 스님들이 일제히 발우를 들고 탁발을 하니 어떤 행사인지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았다”며 “재가자 중심으로 시작된 모금캠페인에 스님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도단체들의 동참을 위해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찬영 중앙신도회 사회공헌 팀장은 “현재 행복바라미의 모금 조직 중 포교사단의 비중이 상당하다. 올해 사찰 외 모금소 217곳 중 78곳에서 포교사단이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며 “거리 모금 포교사들의 정체성 문제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동참을 이끄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계 첫 대국민 나눔캠페인
7년간 12억여 원 자비나눔
지역중심 전환 후 본격궤도

모금 활동가 정체성 확보
대중 노출 확대 필요성 제기

이어 이 팀장은 “구세군의 2018년 거리모금 액수는 39억여원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하지만 명동역 등에서 꾸준히 모금하는 것은 구세군에 대한 국민인식, 이미지 때문”이라며 “기대 모연액이 적어도 노출도가 높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꾸리기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불자들의 재능기부를 이끄는 방안도 나왔다.

고태식 조계종 제23교구 신도회 사무처장은 “실제로 행사를 기획할 때 불교계 신행단체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어려웠다. 여기에 작은 예산으로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막막했다”고 말했다.

박은주 홍보부장은 “불자 기능인들을 중심으로 재능기부를 받는 방법이 있다. 숨어있는 불자 인프라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제안했다.

전연만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향후 기존 권역별 간담회를 통한 지역별 목소리를 청취하고, 워크샵을 통해 함께 역량을 모으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佛都 부산 ‘수국 만다라’ 장엄중

진은 기장 고불사에 핀 수국들.

장마가 시작된 듯 하더니 본격적인 더위가 다가왔다. 여름이 다가오면 만개하는 ‘여름 꽃’은 수국이다. 수국의 한자 이름은 수구화(繡毬花)로 비단으로 수를 놓은 것 같은 둥근 꽃이라는 뜻이다. 불도(佛都) 부산에는 수국들이 만개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안정적 한반도 평화체제 기대”

南北美 정상회담에 주요 종단 환영 입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판문점 정상회담에 불교계 각 종단이 잇달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먼저 조계종은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에 대한 환영 논평을 7월 1일 발표했다. 조계종은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회동에 조계종은 모든 불자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하노이 만남 이후 교착국면을 거듭해오던 북미 및 남북관계의 새 진전을 알리는 역사적인 회동”이라고 평가했다.

조계종은 이어 “역사의 장이 펼쳐진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소신과 의지 결과물”이라며 “회동을 계기로 새 북미관계 대화 물줄기가 흘러 남북관계의 발전적인 변화 속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계종은 “우리종단 역시 남북 불교도 교유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해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태종은 7월 2일 발표한 논평에서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새로운 북미관계의 실질적 대화의 장이 재개되고, 정상의 만남이 워싱턴과 서울, 평양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흔들림 없는 의지와 마중물의 결과물로 경의를 표한다. 천태종도 애국불교의 정신으로 남북불교도들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기반 조성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음종도 환영 논평을 통해 “현직 미국 대통령이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 땅을 방문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됐다”며 “비무장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극적인 조우는 평화 한반도의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덕현 · 윤호섭 기자

종교지도자協 대표의장에 원행 스님

6월 27일 정기이사회서 선출, 임기 2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이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제14대 대표의장에 선출됐다.

종지협은 6월 2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 ‘2019년 정기 이사회’를 열고, 임기 만료된 전임 대표의장 김희중 대주교(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에 이어 원행 스님을 새 대표의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

원행 스님은 대표의장 선출 직후 종교간 화합을 도모해 사회 안정에 보탬이 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에는 원행 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대주교,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유교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등이 참석했다.

한편 종지협은 1997년 종교 화합과 교류를 위해 설립됐다. 불교를 비롯해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개 종교단체 수장이 참여하고 있다. 매년 종교문화축제와 종교지도자 성지순례, 종교간 대화프로그램 등을 이어오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